

#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그 유형의 다양성

박 은 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 Gender Role Ident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Diversity of its Types

Park, Eun A

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facets of gender role identity as reported by several disciplines undergraduate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s. **Methods:** A Q sort methodology was utilized to gather responses to gender role identity. Forty subjects' responses were analyzed by QUANL PC program. **Results:** The subject responses were classified into four gender role patterns: 1) paternity-sensitive type, 2) conviction-sensitive type, 3) sensibility-inhibitive type and 4) sensibility-expressive type. **Conclusion:** The findings add to the understanding of wom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 of their gender role identify. Further studies need to be done to understand how the four patterns relate to success or satisfaction for female college students.

**Key Words:** Female, College student, Gender, Role, Identity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축소,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기회의 증가, 그리고 남녀 평등사상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해오던 성역할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증대로 여자대학생의 성비는 1990년 28.46%에서 2010년 38.43%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이러한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활동의 증가로 200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어섰고 2010년에도 49.4%로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Statics Korea, 2010).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암묵적

으로 양분하여 남성에게는 직업인, 여성에게는 가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Kim & Kim, 2010), 실제로 여자대학생들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성역할정체감을 직업과 관련시키는 것은 많은 직업이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직업군은 남성에게 의해 그리고 어떤 직업군은 여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Correll, 2001)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직업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규정짓는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적 통념되는 인식이라면, 성역할정체감은 사회적 통념을 통해 자신의 성역할을 내재화하여 스스로 성역할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Choi & Kim, 2009). 즉, 성역할정체감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역할 및 행동을 사회적으로 정의하여 받아들이고 내면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

**주요어:** 여자, 대학생, 성, 역할, 정체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Eun A,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1000 Shindang-dong, Dalseo-gu, Daegu 704-701, Korea.  
Tel: 82-10-3639-9226, Fax: 82-53-580-3916, Email: euna-pak@hanmail.net

투고일 2011년 7월 5일 / 수정일 2011년 9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26일

들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용어에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관점과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Thomas, 1986).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특성 예를 들어, 강함, 독립심, 공격성 등을 지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특성 예를 들어, 따뜻함, 양육적 태도, 표현적 태도 등을 지니는 정도에 따라 성격적 특성을 구분(Littlefield, 2003)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Jo, 2008).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계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Forrest & Mikolaitis, 1986), 현실적으로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O'Brein & Fassinger, 1993) 여성의 정체감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Sohn & Kim, 2002). 다시 말해 여성은 생물학적 성과 맞물린 남녀불평등, 가부장제, 유교문화 등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한정하여 정체감 혼란을 겪게 되며, 이것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적응이 어렵게 되고, 삶에 대해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Yeo, 2003b). 성역할정체감은 자아개념의 중요한 요소이고, 자아개념은 자아정체감의 일부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파악하는 것은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 즉, 페미니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써, 남성과 비교하기 보다는 여성의 특성을 잘 살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신의 삶을 타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Yeo, 2003a). 페미니즘 운동은 초기에는 '평등'을 논의의 핵심으로 삼아 남성권력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하였고, 이후에는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남녀 간에는 자연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Yi, 2005).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여성적인 감성과 공감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Kim & Kim, 2010) 여성으로서 가진 좋은 특성을 부각시킨 점을 찾아보는 것도 페미니즘 운동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의 페미니즘은 남녀평등

의 제한점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으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계에서는 페미니스트 견해에서 간호현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Yi & Yih, 2004). 페미니스트 연구결과가 양적 연구결과이건 질적 연구결과이건 간에 간호정책과 실무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간호지식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관련연구들은 남성 중심적 사고체계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Yi, 2005). 또한 양적 연구만이 아닌 혼용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여성의 관점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과학적 지식이 더 가치를 인정받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페미니즘 연구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것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상의 다양성을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간의 감정, 이상, 인식 등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탐구하여 측정하는 Q 방법론은 개인의 심리와 주관성을 확인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Kim & Oh, 2010).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로(Cheon & Jeon, 2009; Kim & Kim, 2010), 성행동(Sung, 2009), 우울과의 관련성(Kim, 2008) 등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Q 방법론은 양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개인의 주관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동시에 현상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도구로써 유용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을 확립해가는 청년기 시기인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들의 성역할정체감 주관성의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청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그 유형의 다양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 2. 표집방법

#### 1) Q 표본 (Q sample)

Q 표본(sample)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이기에 Q 표본의 선정은 통합체가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를 위한 Q 표본은 Kim, Park과 Ko (2010)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개발한 Q 표본을 사용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므로(Park & Noh, 2009)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Q 표본은 한국인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한 자료와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때 사용된 Q 표본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 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다. Q 표본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개 항목, 모두 4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2) P 표본 (P sample)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P 표본의 수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P 표본이 커지면 통계학적으로 문제를 갖게 된다는 소표본이론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P 표본을 구성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기 여성 40명을 호남 지역에서 20명, 영남 지역에서 20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저학년(1, 2학년)과 고학년(3, 4학년)의 비율도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 3) Q 분류 (Q sorting)

Q 분류는 청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Q 표본 40개를 하나씩 읽으면서 주관적인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동의(+), 비동의(-) 또는 중립(0)으로 분류하도록 하되 각 항목들이 강제적으로 유사정상분포(forced quasi-normal distribution)가 되도록 하였다.

각 응답자는 우선 진술문들을 동의, 중립, 비동의로 크게

세 분류로 나눈 다음 동의한 진술문 중 가장 동의 및 비동의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분포해야 할 카드 숫자만큼 배열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분류 후 P 표본에게 동의, 비동의 양극에 놓인 진술문에 대해 분류한 이유나 느낌 등에 대해 적도록 함으로써 Q 요인 해석 시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Q 분류과정 전에 P 표본에게 일반적 특성 조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카드분류 방법 안내문을 보면서 분류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반적 조사지 작성, Q 분류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었다.

#### 4) 자료분석

P 표본으로 선정된 40명의 여자대학생들이 분류한 40개의 Q 진술문들을 각 P 표본이 동의 또는 비동의한 수준에 따라 가장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1점을 시작으로 비동의 정도가 약할수록 1점씩 더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강한 경우 9점을 주어 자료 파일(data file)에 입력한 뒤 PC QUANL program을 통해 각 항목의 표준점수,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한 Q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 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합리적인 Q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Q 요인의 명명은 먼저 40개의 항목 중 Q 요인별로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표준점수 +1.000 이상)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표준점수 -1.000 이하)을 중심으로 Q 요인별 특성을 기술하고, Q 요인별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 중 표준점수가 타 Q 요인과 차이가 큰 항목(1.000 이상)을 Q 분류 자료에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Q 요인별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 Q 요인별 P 표본이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항목을 선정하는 이유를 기술한 내용과 P 표본의 일반적 특성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1. Q 유형의 형성

본 연구는 청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Q 요인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4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45.5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

을 보면 제1유형이 25.08%, 제2유형이 9.23%, 제3유형이 6.87%, 제4유형이 4.36%였다. 연구대상자 40명은 제1유형에 14명, 제2유형에 8명, 제3유형에 8명, 제4유형에 10명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은 제1유형에 3명, 제2유형에 1명, 제3유형에 0명, 제4유형에 3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이 25.08%의 변량을 가지므로 청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주관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상관계수는 .345, 제1유형과 제3유형은 .550, 제1유형과 제4유형은 .463, 제2유형과 제3유형은 .046, 제2유형과 제4유형은 .310, 제3유형과 제4유형은 .42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2. Q 유형별 특성과 해석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동의함 또는 가장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선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가  $\pm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제1유형: 온정 감성형 여성

제1유형은 14명이 속했으며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고,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은 3명이었다. 계열은 인문계열이 7명, 자연계열이 7명이었고, 지역은 호남과 영남이 각각 7명이고, 성격은 내성적이라고 한 사람이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

제1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감정이 풍부하다( $z=1.70$ )’, ‘동정심이 있다( $z=1.68$ )’, ‘이해심이 있다( $z=1.56$ )’,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 $z=1.46$ )’, ‘남이 필요한 것을 잘 알아챈다( $z=1.32$ )’, ‘온순하다( $z=1.31$ )’, ‘참을성이 있다( $z=1.15$ )’ 등이다. 반면에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지배적이다( $z=-1.86$ )’, ‘박력이 있다( $z=-1.82$ )’, ‘결정을 쉽게 내린다( $z=-1.56$ )’, ‘이기적이다( $z=-1.37$ )’ 등이었다.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참을성이 있다(타 유형과의 차이  $z=1.49$ )’, ‘온순하다(타 유형과의 차이  $z=1.08$ )’, ‘부드럽다(타 유형과의 차이  $z=1.06$ )’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수다스럽다(타 유형과의 차이  $z=-1.89$ )’,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55$ )’, ‘외모를 중시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21$ )’, ‘이기적이다(타 유형과의

차이  $z=-1.061$ )’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타 유형이 긍정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역할정체감의 특징인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재화한 대신 부드럽고 온순하면서도 낭만적인 것을 선호하는 특성을 지녔다(Table 2).

이러한 제1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21번, 29번, 40번 대상자에게 Q 분류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적게 하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도와주고 싶다”, “성격이 공격적이지 않고 등글등글하다”, “말투나 행동스타일이 부드럽다”, “어떤 큰 일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소심하다”, “상황을 지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가려는 성향이 크다”, “안전하고 변화 없는 생활을 더 추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1유형이 인식한 성역할정체감은 온순하고 부드럽고 참을성이 있으며 감정이 풍부하면서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는 ‘온정감성형’으로 명명하였다.

### 2) 제2유형: 소신 감성형 여성

제2유형은 8명이 속했으며,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은 1명이었다. 계열은 인문계열이 3명, 자연계열이 5명이었고, 지역은 호남 3명 영남 5명이었으며, 성격은 8명 모두 외향적이라고 답하였다(Table 1).

제2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자기주장을 한다( $z=1.82$ )’, ‘소신이 있다( $z=1.50$ )’, ‘의리가 있다( $z=1.35$ )’, ‘남이 필요한 것을 잘 알아챈다( $z=1.30$ )’,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 $z=1.09$ )’ 등이다. 반면에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과묵하다( $z=-2.57$ )’, ‘공격적이다( $z=-2.40$ )’, ‘수줍어한다( $z=-1.79$ )’, ‘순종적이다( $z=-1.31$ )’ 등이었다.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지도력이 있다(타 유형과의 차이  $z=1.82$ )’, ‘자기주장을 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72$ )’, ‘지배적이다(타 유형과의 차이  $z=1.59$ )’ 등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과묵하다(타 유형과의 차이  $z=-2.23$ )’, ‘수줍어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98$ )’, ‘순종적이다(타 유형과의 차이  $z=-1.53$ )’, ‘동정심이 있다(타 유형과의 차이  $z=-1.50$ )’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과묵한 것은 싫어하고 할 말은 하면서 자기주장을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남이 필요한 것에도 신경을 쓰는 특성을 지녔다(Table 3).

이러한 제2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켜 보여주기 위하여

**Table 1.** Type,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Type	Subject's No.	Factor weight	Major field of study	Region	Personality type
Type 1 (n=14)	4	0.604	Natural science	Honam	Extrovert
	10	0.752	Humanities	Honam	Introvert
	13	0.191	Humanities	Honam	Introvert
	14	0.592	Humanities	Honam	Introvert
	15	0.415	Natural science	Honam	Introvert
	17	0.623	Humanities	Honam	Extrovert
	20	0.561	Natural science	Honam	Introvert
	21	1.057	Natural science	Youngnam	Introvert
	25	0.949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27	0.943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28	0.866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29	2.571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33	0.935	Natural science	Youngnam	Introvert
	40	1.671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Type 2 (n=8)	1	0.414	Humanities	Honam	Extrovert
	3	1.432	Humanities	Honam	Extrovert
	8	0.803	Natural science	Honam	Extrovert
	23	0.679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24	0.582	Humanities	Youngnam	Extrovert
	26	0.715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30	0.384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32	0.908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Type 3 (n=8)	5	0.051	Humanities	Honam	Extrovert
	7	0.582	Natural science	Honam	Extrovert
	9	0.526	Natural science	Honam	Introvert
	16	0.875	Natural science	Honam	Introvert
	22	0.867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36	0.704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37	0.906	Natural science	Youngnam	Introvert
	39	0.598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Type 4 (n=10)	2	0.622	Natural science	Honam	Extrovert
	6	1.040	Humanities	Honam	Extrovert
	11	0.745	Natural science	Honam	Introvert
	12	0.498	Natural science	Honam	Extrovert
	18	0.157	Natural science	Honam	Introvert
	19	0.539	Humanities	Honam	Extrovert
	31	1.301	Humanities	Youngnam	Extrovert
	34	1.360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35	0.702	Natural science	Youngnam	Extrovert
	38	0.711	Humanities	Youngnam	Introvert

**Table 2.** Type 1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Corresponding Array Z'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9	Impatient	1.15	-0.34	1.49
28	Gentle	1.31	0.24	1.08
38	Tender	1.04	-0.02	1.06
16	Selfish	-1.37	-0.31	-1.06
30	Invest in appearance	-0.15	1.06	-1.21
32	Loving beautiful things	0.10	1.65	-1.55
37	Talkative	-0.73	1.16	-1.89



여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3번 대상자에게 Q 분류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적게 하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주변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남을 잘 배려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자기주장이 뚜렷하며 추진력도 강하다”, “그러나 나는 태생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과묵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2유형이 인식한 성역할정체감은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과묵하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자기주장을 하며, 그러면서도 예쁜 물건을 좋아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어 ‘소신 감성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제3유형: 감성억제형 여성

제3유형은 8명이 속했으며,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은 0명이었으나 1에 근접한 0.9063인 사람이 있었다. 계열은 인문계열이 4명, 자연계열이 4명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은 호남 4명 영남 4명으로 동일하였으며, 성격은 외향적 2명, 내성적 6명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더 많았다 (Table 1).

제3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z=2.11)’, ‘감정을 숨긴다(z=1.75)’, ‘이해심이 있다(z=1.74)’, ‘외모를 중시한다(z=1.28)’, ‘말을 곱게 한다(z=1.27)’ 등이다. 반면에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지배적이다(z=-2.22)’, ‘지도력이 있다(z=-1.81)’, ‘성격이 강하다(z=-1.70)’, ‘공격적이다(z=-1.49)’ 등이었다.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감정을 숨긴다(타 유형과의 차이 z=2.56)’, ‘과묵하다(타 유형과의 차이 z=1.98)’, ‘말을 곱게 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55)’ 등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성격이 강하다(타 유형과의 차이 z=-1.56)’, ‘지도력이 있다(타 유형과의 차이 z=-1.48)’, ‘자기주장을 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23)’, ‘낭만적인 것을 좋아한다(타 유형과의 차이 z=-1.16)’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등 여성적인 특성이 강하면서도 감정을 숨기는 특성과 함께 지도력이 있거나 성격이 강하면서 지배적이지는 않은 특성을 지녔다(Table 4).

이러한 제3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37번 대상자에게 Q 분류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적게 하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 “나는 좋고 싫음이 티 나지 않게 표정관리 잘한다”, “나는 타인을 공격하고 비판적인 말을 잘하지 못하고 리더쉽이 부족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3유형이 인식한 성역할정체감은 여학생 특유의 예쁜 물건에 대한 선호 및 스스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특성과 함께 자신의 좋고 싫음에 대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자제하는 ‘감성억제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Type 2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Corresponding Array Z'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1	Acts as a leader	0.66	-1.16	1.82
4	Assertive	1.82	0.11	1.72
9	Dominant	-0.17	-1.76	1.59
14	Initiative	0.60	-0.97	1.58
8	Defends own beliefs	1.50	0.08	1.42
12	Forceful	-0.09	-1.45	1.37
20	Dealing with serious matters well	0.70	-0.65	1.35
13	Independent	0.79	-0.54	1.33
3	Ambitious	0.50	-0.56	1.06
22	Take care of children	-0.71	0.35	-1.06
2	Aggressive	-2.40	-1.32	-1.07
39	Understanding	0.06	1.37	-1.31
25	Does not use harsh language	-0.91	0.45	-1.36
36	Sympathetic	-0.14	1.36	-1.50
40	Yielding	-1.50	0.03	-1.53
34	Shy	-1.79	0.20	-1.98
18	Taciturn	-2.57	-0.35	-2.23

4) 제4유형: 감성 표출형 여성

제4유형은 10명이 속했으며, 인자가중치가 1.0 이상인 사람이 3명이었다. 계열은 인문계열이 5명, 자연계열이 5명으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고, 지역은 호남 6명 영남 4명으로 호남이 조금 더 많았으며, 성격은 외향적 6명, 내성적 4명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았다(Table 1).

제4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예쁜 물건을 좋아한다( $z=1.77$ )’, ‘수다스럽다( $z=1.75$ )’, ‘동정심이 있다( $z=1.6$ )’, ‘감정이 풍부하다( $z=1.53$ )’, ‘질투심이 있다( $z=1.49$ )’ 등이다. 반면에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감정을 숨긴다( $z=-1.78$ )’, ‘추진력이 있다( $z=-1.68$ )’, ‘위험을 무릅쓴다( $z=-1.53$ )’, ‘과묵하다( $z=-1.47$ )’ 등이었다.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공격적이다(타 유형과의 차이  $z=1.45$ )’, ‘수다스럽다(타 유형과의 차이  $z=1.42$ )’, ‘이기적이다(타 유형과의 차이  $z=1.289$ )’ 등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에 비해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감정을 숨긴다(타 유형과의 차이  $z=-1.39$ )’,

‘남이 필요한 것을 잘 알아챈다(타 유형과의 차이  $z=-1.08$ )’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여 수다스럽고, 감정이 풍부하고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지녔다(Table 5).

이러한 제4유형의 특성을 좀 더 부각시켜 보여주기 위하여 이 유형의 대표성을 지닌 높은 인자가중치를 보인 6번, 31번, 34번 대상자에게 Q 분류 후 가장 동의한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적게 하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예쁜 물건을 좋아해서 아기자기한 것을 잘 모은다”, “나는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제4유형이 인식한 성역할정체감은 감정이 풍부하고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는 등 여학생 특유의 감성과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감성표현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4. Type 3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Corresponding Array Z'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10	Emotion conceal	1.75	-0.81	2.56
18	Taciturn	0.58	-1.40	1.98
25	Does not use harsh language	1.27	-0.28	1.55
34	Shy	0.84	-0.68	1.52
40	Yielding	0.76	-0.73	1.49
32	Loving beautiful things	2.11	0.99	1.12
8	Defends own beliefs	-0.40	0.71	-1.11
9	Dominant	-2.22	-1.07	-1.15
27	Enjoying romantic things	-0.10	1.06	-1.16
4	Assertive	-0.39	0.84	-1.23
1	Acts as a leader	-1.81	-0.33	-1.48
17	Strong character	-1.70	-0.12	-1.58

Table 5. Type 4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Corresponding Array Z'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	Aggressive	-0.51	-1.95	1.45
37	Talkative	1.75	0.33	1.42
16	Selfish	0.39	-0.90	1.29
31	Jealous	1.49	0.33	1.15
22	Take care of children	0.95	-0.21	1.15
23	Charming	0.95	-0.11	1.06
33	Sensitive to the needs of others	-0.19	0.88	-1.08
3	Ambitious	-1.33	0.06	-1.39
14	Initiative	-1.68	-0.21	-1.47
10	Emotion conceal	-1.78	0.37	-2.14

### 5) 유형 간 일치 항목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네 유형 간에 공통적으로 긍정하  
는 항목은 ‘의리가 있다( $z=0.93$ )’, ‘상냥하다( $z=0.74$ )’, ‘남  
을 잘 위로한다( $z=0.62$ )’이었으며,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항목은 ‘경쟁적이다( $z=-0.72$ )’ 등이었다.

## 논 의

오늘날 여자대학생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고학력화되었  
고, 장차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만,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출산과 같은 여성 고유의 역  
할과 함께 가정에 대한 관리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남자대학생과는 다른 갈등에 직면하고 있  
다. 성역할정체감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개념으로,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하는 것은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역할갈등을 예견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대학생  
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주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성역할정  
체감에 대한 여자대학생의 주관적 태도 유형을 분석함으로  
써 여자대학생 고유의 성역할정체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온정 감성형 여성, 소신 감성형 여성, 감성  
억제형 여성, 감성 표출형 여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은 ‘온정 감성형’으로, 동정  
심이 있어서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말투나  
행동이 부드러우면서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였다. 이 유형  
은 여성으로서 가진 따뜻한 온정과 감성을 부각시키고 있  
는데, 이러한 점은 여성은 남성과 역할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스럽고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고 밝힌 Yeo (2003a)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  
다. 또한 남성은 자율성, 적극성, 목적지향성을 가지는데  
반해 여성은 표현성, 의존성, 수동성, 관계성을 가진다고 하  
여 여성이 남성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본 Fisher (1982)의  
연구와도 같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온정 감성형이 여자대  
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의 직업 등 성차에 의한 직업분  
류가 모호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 유형은 ‘소신 감성형’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자기주장을 하며, 그러면서도 남을 살필 줄  
알고 예쁜 물건을 좋아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유형  
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 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남성적 특  
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유형으로, 성역할정체감이 고정  
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발달주기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Choi, 2004), 최근 사회나 학교에  
서 양성평등 인식에 대한 강조로 인해 고정관념에서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 Koo  
(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양성성이 높을수  
록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 Choi  
와 Kim (2009)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성역할정체감이 과학  
과 같은 특정과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  
이나 학교, 사회에서의 다각적인 교육과 함께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3유형은 ‘감성 억제형’으로,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말  
도 곱게 하며 자신의 외모관리도 중요시 하지만 자신의 감  
정이 남에게 전해지는 것은 싫어해서 감정을 숨기는 경향  
이 있었다. 이 유형은 여성은 능력 면에서 남성과 동등하지  
만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특질을 가지며, 사회생활 참여도  
가능하며, 여성이 아름다울수록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한  
Yeo (2003b)의 여성에 대한 태도분석 연구의 동등-현실형  
과 유사한 유형이다. 중·고·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의 발  
달과 변화를 확인한 Choi (200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여성성으로만 고착화된다고 밝혔듯이 표  
면적으로는 여성들의 남성적 역할 수행에 허용적이고 격려  
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성 전형적인 여성을 요구하는 사회  
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4유형은 ‘감성 표출형’으로, 예쁜 물건과 낭만적인 것  
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성을 숨기지 않고 표현  
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이었다. 감성 표출형이 타 유형과의  
차이점을 보면 애교와 질투심이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서도 아이를 잘 돌보는 모성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시각에서는 대체로 열등하다고 여겨온 여성성  
요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패러  
다임이 여성적인 감성과 공감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고, 미래의 사회는 관계중심, 공감 등의 능력을 발  
휘하는 여성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시대가 될 것이라  
고 한 Kim과 Kim (201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네 가지 유형 중 온정감성형, 감성억제형, 감성표출형은 전형적인 여성성이 강조되는 유형이었으나 소신감성형은 타 유형과 비교 시 남성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지니는 유형이다. 즉, 여성치고는 남성적인 편이나 여성적인 감성은 내재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여자대학생들에게 여성성의 비중이 큰 것은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중요시 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된 네 가지 유형이 공통적으로 긍정하는 항목은 '의리가 있다', '상냥하다', '남을 잘 위로한다'이었다. 이러한 점은 남자대학생과 중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Park과 Jo (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서구 남성들은 남성 간의 친밀성을 거부하고 정서적인 면을 억제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남성 간의 의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역할 덕목으로 보았다. 여성에 대한 여성성 역할과 적응에 대한 선행 자료는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긍정하는 항목이 '의리가 있다'로 나타난 점에서 볼 때, 의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성역할정체감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네 가지 유형이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경쟁적이다' 등이었다. 이는 실제로 여자대학생들이 서로 경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적인 성향을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성역할정체감으로 내면화시켰는지 잘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격과 지역 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전공 계열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역할정체감과 성격과의 관련성을 볼 때, 온정 감성형과 감성억제형은 성격이 내성적인 경향을 나타내었고, 소신 감성형과 감성 표출형은 외향적인 경향이 많았다. 보통 내성적인 성격의 특성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독서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의 특성은 적극적이고 사회성이 높아 사회적 활동을 즐기고 참여하려고 한다(Yoo & Lee, 1992).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자기주장적인 소신 감성형과 자신의 감성을 표출하는 사람들에서 외향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던 본 결과는 성역할정체감이 성격과 마찬가지로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성역할정체감과 지역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감성 표출형은 호남 지역 사람이 많

았고, 소신 감성형은 영남 지역 사람이 많았다. 우리나라 지역집단별 가치관을 조사한 Kim (1995)의 연구에 따르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 여성들 간의 가부장적 여성성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특정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적 특성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과 전공계열 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전공계열 간 특이점과 관련하여 Yoon, Tak과 Lee (2009)가 전공계열(공학계, 인문계) 중 인문계 여대생은 여성성이 높고, 공학계 여대생은 남성성이 높게 나타나 성역할정체감과 전공계열 간에는 관련성이 존재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진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 입학 초기와 졸업 시의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해 보는 것은 전공계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은 주로 전형적인 여성성을 가지고 있지만 온정 감성형, 감성 억제형, 감성 표출형 여성 등 여성성 중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 연구는 주로 Bem (1974)의 도구를 이용하여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성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Bem의 분류에서 단지 여성성으로만 분류되었던 성역할정체감이 본 연구에서 시도한 대상자의 주관성 확인을 통해 여자대학생들이 다양한 여성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과 더불어 여자대학생 고유의 특성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Q 방법론을 통해, 즉 다양성을 중요시 하는 페미니즘 시각을 통해 가능하였다. 이는 간호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이러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여자대학생의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이들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 적응을 하는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주관성을 객관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에 의한 주인자분석법으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여자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온정 감성형'으로 온순하고 부드럽고 참을성이 있으며 감정이 풍부하면서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는 여자대학생이다. 제2유형은 '소신 감성형'으로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과묵하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자기주장을 하며, 그러면서도 예쁜 물건을 좋아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는 여자대학생이다. 제3유형은 '감성 억제형'으로 여학생 특유의 예쁜 물건에 대한 선호 및 스스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특성과 함께 자신의 좋고 싫음에 대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자제하는 여자대학생이다. 제4유형은 '감성 표출형'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예쁜 물건을 좋아하고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는 등 여학생 특유의 감성과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여자대학생이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여자대학생의 주관적 태도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확인하고, 그 다양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역할정체감과 전공 계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 입학 초기와 졸업 시의 성역할정체감을 비교하는 연구와 함께 중년기 등 발달단계 별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Bem, S.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Cheon, S. M., & Jeon, E. J. (2009). The relationship among sex-role identity, shame and career barrie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Humanities, 14*(3), 219-238.
- Choi, I. S. (2004).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sex-role 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213-232.
- Choi, Y. H., & Kim, S. W. (2009).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science by child-rearing attitude of parents perceived by female students and sex-role identit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29*(5), 501-512.
- Correll, S. J. (2001). Gender and the career choice process: The role of biased self-assessm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 1691-1730.
- Fisher, R. J. (1982). *Social psychology: an applied approach*. New York: St. Martin's Press.
- Forrest, L., & Mikolaitis, N. (1986). The relational component of identity: An expansion of a career development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76-88.
- Jo, K. H. (2008). Types of attitudes toward a successful lif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1), 111-121.
- Kim, E. H., & Kim, B. W. (2010). A study on the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ender role identit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9*(4), 165-183.
- Kim, H. K., & Oh, S. J. (2010). A perspective on the subjective factors among the smartphone us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20*, 59-78.
- Kim, H. S. (1995). An empirical study of Korean patriarchal values (II).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14*(1), 197-216.
- Kim, J. S. (2008). *Effects of activity-centered education program on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Masan.
- Kim, M. A., Park, E. A., & Ko, S. H. (2010). *Older women perspective on gender role identity in Korean culture: Is there any unique gender role identit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1st Global Congress fo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GCQHR). Seoul.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Center for education statics. <http://cesi.kedi.re.kr/index.jsp>
- Koo, K. H. (2002). Young women's gender-role identity types & their stereotypes on gender-rol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he Human Science Studies, 10*, 195-223.
- Littlefield, M. B. (2003). Gender role identity and stress in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8*(4), 93-104.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su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Park, B. K., & Noh, P. S. (2009). Adolescents' gender-role identity types an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8), 149-177.
- Park, S. A., & Jo, E. K. (2002). Male gender role and adjustment of Korean m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2), 77-103.
- Sohn, E. R., Kim, K. H. (2002). The factor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121-139.
- Statics Korea (2010). Labor force statistics in 2010.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3&pubcode=WA&type=F](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3&pubcode=WA&type=F)
- Sung, M. H. (2009).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 of Women's Health Nursing, 15(1), 73-80.*
- Thomas, V. (1986). *Sex roles: A synthesis and critique of selective measurement and research*. Washington, DC: Howard University, Institute of Urban Affairs and Research.
- Yi, M. (2005). Feminism in nursing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5), 914-923.*
- Yi, M., & Yih, B. S. (2004). Feminism an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3), 565-575.*
- Yeo, J. H. (2003a). College women's meaning of women: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34-41.*
- Yeo, J. H. (2003b). An attitudinal study on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3), 347-355.*
- Yoo, H. J., & Lee, C. (2002). The relationship of introversion-extraversion to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1(1), 28-35.*
- Yoon, D., Tak, J. K., & Lee, S. H. (2009). A study between female students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humanities by sex role identity,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4(4), 497-514.*